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771>

JCCT 2023-11-91

문학을 활용한 드라마의 전략 연구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2020)을 중심으로

A Study of Strategies in Drama Using Literature

-Centering on the drama <I will visit you if the weather is nice>(2020)

손미영

Son, Mi-young

요약 본 연구는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2020)을 통해서 드라마가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드라마의 정서와 서사, 그리고 인물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살핀다. 이 드라마는 시를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물을 훨씬 더 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화의 서사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관계 변화와 성장의 서사를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회차마다 등장인물의 일기를 스틸컷과 함께 보여주어서 마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한 편의 문학 작품을 읽는 것과 같은 서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로써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장과 치유의 서사를 공감하고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게 하며, 문학이 지닌 치유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주요어 : 문학, 시, 드라마,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통섭, 독서, 서정성, 치유, 성장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y of using literary works to effectively present the emotions, narrative, and characters of a drama through the drama "I'll Visit You When the Weather is Good" (2020). The drama uses poetry to effectively show the internal conflicts of the characters, allowing the viewers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much more closely. It also shows the narrative of relationship change and growth between the characters through the narrative of a fairy tale. On the other hand, by showing still cuts of the characters' diaries in each episode, it creates a lyrical effect, as if watching the drama is like reading a literary work. In this way, the drama "I will visit you when the weather is nice" actively utilizes literature to help viewers relate to the narrative of growth and healing and experience it as their own, thus creating a three-dimensional image of the healing effect of literature.

Key words : Literature, Poem, Drama, Korean Drama, Reflection, reading, lyricism, healing, growth

1. 서론

책을 읽는 행위는 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자,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독서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의 과정만이 아니라 휴식과 치유의 과정이다. 이러한 독서의 특성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에서 인물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이나 서사의 전환을 이뤄나가는 장면 등에서 종종 활용되고는 한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대

*정회원,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주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25,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myshon@kw.ac.kr

Dept. of Ingenium, Kwang woon Univ, Korea

이후 한국 드라마는 시나 소설을 비롯하여 웹툰의 영상화가 흔한 일이 되었을 만큼 서로 다른 미디어의 텍스트들이 통섭하며 서사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2020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를 중심으로 드라마가 문학을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문학과 드라마가 통섭하는 양상을 살핀다.

드라마와 문학 텍스트의 통섭에 관하여는 많지 않으나 몇 편의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영상적 측면에서 시의 내용이 독백으로 전달됨으로써 인물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인물들 사이의 관계 진전을 보여주었던 사례와 운동주나 이상과 같은 문학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의 삶과 시세계를 영상화하였던 사례를 검토한 선행 연구[1]~[3]가 주목을 요한다. 이들 연구는 문자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된 문학 텍스트가 영상물에서 문자 그대로 전면화되거나, 혹은 이미지와 배우의 독백, 즉 음성으로 제시됨으로써 텍스트가 융합되는 양상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시가 서사의 진전과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점과 독서라는 행위와 공간이 드라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구성하고, 시청자들로부터 드라마를 통한 치유와 휴식의 반응을 이끌어내었음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주요한 해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20년 JT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이다. 이 드라마는 선행 연구가 주목하였던 <도깨비>나 <신사의 품격>처럼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얻은 드라마는 아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영되는 동안 시청자들의 탄탄한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될 무렵 시청자들에게 ‘힐링 로맨스’로 입소문을 얻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인심 넘치는 분위기와 서점, 독서회와 같은 아날로그적 요소들, 그리고 첫사랑과 같은 향수를 자극하는 내용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일 무렵까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로 이동한 이후에도 꾸준한 인기를 얻을 수 이점이 되었다.

본고는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를 통하여 드라마에서 문학 텍스트가 활용되는 양상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이로써 어떠한 서사적 효과를 얻어내며 드라마의 감성을 만들어내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드

라마가 문학과 독서라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활용하는 양상을 검토하여 치유와 휴식의 정서가 구성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다. 이 작업은 시라는 문자 텍스트가 영상과 통섭하는 주요한 장면에 대한 해석이자, 서로 다른 형식이 융합되거나 때로는 병치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문학 텍스트와 드라마의 통섭 양상 분석

1. 인물의 내면과 관계를 암시하는 시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의 주요 공간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책방이다. 남자주인공 은섭(서강준 분)이 운영하는 ‘굿나잇 책방’은 두 남녀 주인공의 관계가 진전되는 공간이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독서회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문학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특히 매주 열리는 독서회에서는 인물들의 목소리로서 시가 낭송되며 이는 전반적인 드라마의 감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시가 활용되는 양상을 우선적으로 짚어보자면,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물의 내면과 잇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는 상황에서이다. 예를 들면 3화에 등장한 안도현의 시 「수선화에게」는 독서회에서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낭송된다. 삶의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시는 고등학생이던 은섭에 의해 낭송되는데, 해원이 문득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는 회상과 겹치면서 이 인물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안도현의 시는 다른 인물이 아닌 남녀 주인공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초기 에피소드들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어 이들 주인공 사이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연결고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2화에서도 안도현의 시 「술 한 잔」과 함께 여자 주인공인 해원(박민영)의 내면이 제시되는 까닭이다. 이 시 또한 「수선화에게」와 마찬가지로 독서회에서 낭송되며, 그 순간 해원은 서울에서의 지난했던 삶을 떠올린다. 드라마는 해원이 서울에서 첼로 강사로 일하며 보낸 건조하고 지친 삶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목소리로 겹쳐지는 시의 내용은 해원의 아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한편으로 그녀를 위로한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 정호승, 「술 한잔」 부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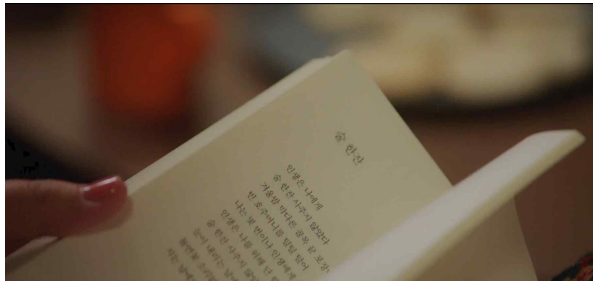


그림 1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2화의 장면들
 Figure 1. Scenes from episode 2 of the drama <If the weather is nice, I'll visit you>

2화에 등장하는 「술 한잔」은 해원이 서울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과 그 과정에서 지쳤던 그녀의 내면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책이 펼쳐지는 순간, 시가 낭송되며 장면은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보낸 그녀의 날들을 보여준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혼자 밥을 먹고, 조금 더 재미있게 강의하라는 원장의 말에 화려하고 우스꽝스러운 의상을 앞에 두고 고민하던 해원의 모습이 시와 함께 제시된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때의 그녀의 모습, 즉 회상과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는 시의 내용은 그녀가 귀향을 택하게 된 사연 또한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시의 맺음과 함께 영상은 생각에 잠긴 해원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제서야 시청자들은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해원이 시를 들으며 떠올린 회상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드라마는 초기 에피소드에서 인물들 사이의

대화는 직접적인 회상을 통하여 주요 인물들의 전사(前史)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드라마는 그들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 이를테면 잠깐 생각에 잠긴 은섭이나 해원의 모습이나 서울에서의 일상 일부를 시의 메시지와 함께 겹쳐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내력에 관하여 한층 정서적인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물들의 내면을 훨씬 더 친밀하게 감촉하게 하는 한편으로 목소리를 통해 낭송되는 시 텍스트가 전달하는 정서를 더욱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서정성의 확장’에 주목하여 작은 존재와 서민들의 보편적인 감성을 이끌어내는 안도현의 시를[5] 활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위로를 동시에 이끌어낸다. 즉, 성찰을 통해서 존재를 긍정하는 생명성의 서정이 드라마 속 인물들의 지난한 과거와 함께 겹쳐지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물의 내적 고통에 공감하는 한편으로, 인물에 시청자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위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

드라마에서 시가 활용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시가 인물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서브플롯에 해당하는 해원의 이모인 심명여(문정희 분)와 차유택(황건 분)의 이야기 전개에서 주로 활용된다. 책 출간의 문제로 명여는 예전의 약혼자인 유택과 재회하는데, 자신의 여전한 마음을 고백하는 유택에게 명여는 병으로 멀어버린 자신의 눈을 보이며 자신은 이제 시들어버렸다고 말한다. 검은 안경을 쓰고 앞서 걷는 명여의 뒤에서 오열하는 유택의 장면 뒤로 명여의 목소리로 조지훈의 시 「사모」가 낭송된다.

다섯 손가락 끝을 잘라 핏물 오선을 그려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밤에 울어 보리라
 울어서 멍든 눈흘김을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조지훈 「사모」 부분[6]

드라마는 시 「사모」의 후반부와 함께 다시 결합할

수 없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명여의 목소리는 여전한 운택에 대한 마음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해야 하는 그녀의 괴로움을 그대로 표현한다. 드라마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시와 함께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조지훈의 시 「사모」는 이미 떠나버린 연인에 보내는 시이다. 시인 사후에 육필 원고로 발견된 이 시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고뇌와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시이다.

드라마는 이 시의 등장과 배치를 의도적으로 도치시키는데, 명여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섯 손가락 끝을 잘라 핏물 오신을 그려”에서부터 낭송을 시작한다. 이 장면은 운택과 명여의 회복할 수 없는 관계와 이 관계를 바라보는 명여의 내적 고통을 그대로 전달한다. 이로써 시청자들은 손가락 끝을 자르는 것과 같은 처절한 고통으로 이별을 택하는 명여의 감정에 이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 직후, 드라마는 자연스럽게 독서회의 모임 장면으로 분위기를 환기한다. 이번에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은실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지훈의 「사모」 전반부가 낭독된다. 은실의 목소리로 낭송되는 「사모」의 전반부는 명여의 후반부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유쾌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정작 할 말이 남아 있음을 알았을 때/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시의 도입은 은섭의 친구이자 학창시절에 은실에게 고백했다가 다른 사람을 이유로 거절당했던 장우의 서사와 겹치며 명여-운택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장면들은 한 편의 시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물들의 관계를 더욱 친근하거나 절절한 감정으로 인식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드라마의 완급 조절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연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연으로 끝나는 순서대로 읽는 시를, 반대로 배치하여 읽음으로써 시가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하고 해석하며 감상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드라마라는 영상매체의 편집의 미학과도 닮아있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예술 텍스트가 통섭함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감상 방식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시 텍스트를 통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물들의 내면과 이들의 전사를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한편으로는 인물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관계의 변화를 암시할 때에 시를 활용함으로써,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으로 감정을 극대화한다. 이로써 드라마의 전반적인 감정선을 조율하고 조지훈의 「사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학과 영상이 통섭하여 새로운 문화적 향유의 장면을 만들어낸다.

2. 인물과 서사의 전개를 은유하는 문학 텍스트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에는 시 외에도 다양한 문학 텍스트들이 등장하여 드라마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명여와 운택에 관한 에피소드에서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의 유명한 한 부분이 등장한다. 바로 소설의 초반부 주인공인 모모가 하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라고 묻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는 부분이다. 이는 어긋나버린 명여와 운택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들이 지닌 감정을 암시한다. 즉, 『자기 앞의 생』 후반부에서 모모가 하밀 할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고,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긋나버린 현재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한때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드라마는 시 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에세이와 같은 문학 텍스트를 폭넓게 활용하여 인물들의 관계나 서사의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 특히 남자주인공인 은섭은 문학 텍스트의 서사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서사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은섭을 설명해주는 문학 텍스트는 『늑대의 눈썹』이다. 일본의 전래 동화인 이 텍스트는 항상 사람들에게 속는 소년이 늑대를 만나 사람들의 정체를 볼 수 있는 눈썹을 건네받고는 세상 사람들의 본모습을 보고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화의 서사는 아버지에 의해 산에 홀로 버려졌다가 지금의 가족을 만난 은섭의 내력과 연결된다. 특히 고립된 환경 탓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은섭이 혼자 남겨졌다는 점, 산 지리에 밝다는 이유로 조난자가 생길 때마다 매번 위험한 산을 오르면서도 아무도 그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린 시절 은섭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속이려고만 하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내야만 한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에서 동화 속

소년이 은섭의 은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자서 생을 마감한다는 이 동화의 결말과 달리 은섭의 외로움은 해원에 의해 해소된다. 산에 혼자 남겨졌던 그의 외로운 과거를 알게 된 해원은 은섭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외로움에 공감한다. 이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그녀의 과거 기억에 기인한다. 그래서 해원은 사랑을 두려워하는 은섭에게 동화와 다른 ‘은섭’의 결말을 대신 말해준다.

해원 늑대의 은빛 눈썹을 가진 그 소년의 이야기.
그거 말이야.

은섭 (가만 보자)

해원 니가 그랬지. 결국 소년은 진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을 결국 찾아.

은섭 응.(‘근데?’하듯 보면)

해원 아니. 찾아. ...소년은 진짜 사람들만 사는 그런 마을을 결국 찾아.

은섭 (안 믿는 듯 보면)

해원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 ... 지금의 너처럼.

은섭, 해원을 쳐다보는데, 웬지 두려운 얼굴이다. 그러나 해원이 은섭에게 한 걸음 다가간다.

해원 (E)네가 그 소년이었구나.

해원, 한 걸음, 두 걸음 속도를 내 은섭에게 다가간다.

해원 (E)너도 그 소년이었구나

은섭이 약간 머뭇하는 사이,

해원 (E)너도 나만큼 추웠었구나.

- 한가람,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한가람
대본집』 9화 부분[7]

해원이 은섭을 끌어안는 순간은 연인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지만, 동시에 외로웠던 자기 자신과의 화해의 장면이다. 그녀는 은섭에게 늑대의 눈썹을 가진 아이가 동화 속 결말과 달리, 지금의 은섭처럼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새로운 결말을 말해준다. 그것은 현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림받았던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은섭을 향한 위로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자기 자신 또한 은섭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애정을 받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화해와 치유의 순간은 3회에서 『늑대의 눈썹』이라는 동화와 함께 은섭의 어린 시절을 영상으로 겹쳐서 제시하고, 9화에 이르러서는 해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각색된 동화의 결말과 함께 “네가 그 소년이었구나.”라는 내레이션으로 완성된다. 이로써 동화는 영상 속 인물을 설명하는 한편으로 이들이 내적인 치유와 성장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청자들에게 마치 동화를 읽는 것처럼 서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

이외에도 8화에서는 잘 알려진 동화 『파랑새』를 활용하여 은섭이 늘 항상 곁에 있었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던 해원을 암시한다. 9화에 이르러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원은 간혹 홀로 산에 틀어박히는 은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무심함에 서운해한다. 해원은 은섭의 마음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오해하고 그의 마음을 찾으려 하지만 9화에 이르러 그가 학창시절부터 자신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소년’임을 이해하게 된다. 다른 곳을 헤매던 끝에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파랑새』의 서사와 겹쳐지는 결말이다.

이처럼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시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서 인물들의 내면과 과거를 제시하는 한편으로, 인물들의 서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문학적 텍스트는 드라마의 영상과 함께 전반적으로 서정적인 드라마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물의 감정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한편으로, 자칫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의 외로움과 내면의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즉, 배우들의 대사를 통한 직접적인 토로나 고백이 아니라, 은유와 암시의 방식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드라마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전달력을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드라마는 자연스레 문학 텍스트에 몰입하게 하여 드라마 외에도 문학 작품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게 만드는 효과도 얻어낸다. 영상과 문학이 통섭함으로써 문학이 지닌 서정성과 영상의 시각적 효과가 유의미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례라 할 것이다.

III. 읽기-쓰기를 통한 드라마의 전략 분석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에는 다양한 문학 텍스트가 영상과 함께 제시되어 서정적인 분위기를 구성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이 드라마가 문학적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얻어낸 미덕이기도 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 속에서 글을 쓰는 인물들을 다수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인물들이 쓴 글은 드라마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며, 이는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이지만 동시에 서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다.

특히 주인공인 은섭이 쓰는 책방일지는 매화 드라마가 끝난 뒤, 엔딩 크레딧처럼 제시되는데, 은섭의 시점에서 바라본 해원의 모습과 함께 그가 쓴 글이 문자로 제시된다. 이는 한 편의 영상편지를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회차의 서사를 다시금 되새기고,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한다.

겨울이 와서 좋은 이유는 그저 한 가지.

내 창을 가리던 나뭇잎이 떨어져 건너편 당신의 창이

보인다는 것.

크리스마스가 오고, 설날이 다가와서

당신이 이 마을로 며칠 돌아온다는 것.

굿나잇책방 블로그 비공개글

posted by 葉

-한가람,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한가람 대본집』 1화 부분[7]



그림 2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1화의 장면
Figure 2. A scene from episode 1 of the drama <If the weather is nice, I'll visit you>

해원이 북현리에 돌아왔을 때, 은섭은 블로그에 책방일지를 적으며 그녀가 돌아와서 기쁜 마음을 적어낸다.

드라마의 시작 부분에서도 해원을 향해 수줍은 미소를 짓는 은섭의 모습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은섭이 해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회차가 끝나고 마치 엔딩 크레딧 혹은 쿠키 영상처럼 은섭이 쓴 책방일지와 함께 1분 가량의 해원의 스틸컷이 함께 제시되면, 시청자들은 은섭의 마음이 오래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가 겨울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즉 해원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혼자 기다리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회차마다 제시되는 ‘책방일지’는 은섭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으로서, 시청자들은 은섭의 글을 통해 해원과, 드라마 속의 관계를 다시 읽게 된다. 특히 이 영상은 내레이션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속의 스틸컷을 넘기는 마치 책장을 넘기는 듯한 효과와 함께 문자 그대로 제시한다. 시청자들의 독해 속도를 고려하여 중요한 글자를 굵은 글씨로 강조한 책방일지가 마치 누군가의 일기를 몰래 읽는 것처럼 책장을 넘기는 효과와 함께 제시되는 것이다.

드라마는 이 글이 은섭이 쓴 책방‘일지’임을 밝힌다. 즉, 기록자가 그 자신을 수신자로 하여 고백하는 글이다. 그런데 이 기록이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틸컷과 함께 제시됨으로써, 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주어지는 공적인 고백 혹은 낭독으로 변모한다.[8] 시청자들을 향해 발신된 이 기록은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내밀한 기록이라는 인식을 얻는다. 가장 진정성 있는 고백이자, 인물의 진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책방일지’가 책장을 넘기는 듯한 화면 전환 효과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이는 드라마라는 영상매체가 문자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책의 형식을 영상 안에서 재현함으로써, 문학 텍스트만이 줄 수 있는 정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시청자들의 감성을 추동할 수 있는 영상 텍스트가 문자라는 상징적 매개를 활용하여 도리어 그 진정성과 서정을 강조하는 최소한 사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원작인 이도우의 소설을 영상화 하는 과정에서, 소설에서는 문자로 표현되었을 장면들을 영상과 문자의 통섭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문학과 독서가 지니고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충분히 이해하

고, 영상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성취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고는 2020년 JT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를 통해서 드라마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함으로써 정서를 전달하는 양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드라마에서 문학 텍스트는 시와 소설, 그리고 인물이 직접 쓴 소설이나 일기의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책방에 모여 독서회를 진행하는 장면들을 통하여 문학이 지닌 아날로그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에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리는 한편으로, 회상과 겹쳐 제시하여 인물의 과거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주로 시와 함께 활용되는 방법인데, 드라마 속 인물의 내레이션으로 시가 낭송되면서 인물의 감정과 내적 갈등, 그리고 그가 겪었던 지난한 과거를 극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가 지닌 서정성과 메시지가 영상 속 인물의 상황과 겹치면서 시청자들은 인물의 감정을 훨씬 더 가까운 방식으로 감촉하게 된다.

한편으로 드라마는 동화의 내용이나 소설의 일부분을 활용하여서 인물의 내면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 암시한다. 특히 동화의 서사를 활용할 때에는 중심인물인 은섭과 해원의 내적 성장을 은유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물들의 성장을 구구절절한 대사나 장면으로 설명하는 대신, 감성적으로 묘사한다. 이로써 드라마는 두 가지의 서사가 겹치지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동화의 서사로 드라마 속 인물의 서사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다.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의 매화마다 인물의 일기를 스틸컷과 함께 삽입하여 마치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 한편의 책을 읽은 것과 같은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드라마는 인물의 일기 쓰기를 보여주고, 또 그 내용을 책장을 넘기는 듯한 효과와 함께 문자로 제시하여 인물의 내적 고백을 시로 읽는 것과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문학을 서사로 이해하고, 낭송되는 시를 듣는 것과 달리, 문학 작품을 직접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즉, 드라마의 한 회차가 한 권의 문학 작품처럼 마

무리되는 정서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처럼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는 문학 텍스트를 전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아날로그적 정서를 영상으로 포착해낸다.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성장과 치유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적절히 배치하여 문학이 지닌 치유의 힘을 드라마로 구현해낸다.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무렵에 다시금 주목받았던 것은 바로 문학을 활용한 드라마의 전략에 기인한 까닭일 것이다.

References

- [1] Son, Mi-young, "A Study on the Cooperative Patterns of Literature and Dram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1, pp.37-43, November 2019.
- [2] Son, Mi-young, "A Study on the Use Pattern of Lee Yuk-sa in the media-Focused on the drama 'Climax'(201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4, pp.31-37, November 2020.
- [3] Son, Mi-young, "A Study on the Meaning of Korean Literature in Video Media-Focused on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2004)",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4, pp.195-202, November 2021.
- [4] Jeong, Ho-seung, *When the Tears Come, Take the Train*, Changbi, 1999.
- [5] Jo, Mi-hee,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Lyricism of Ahn Do-Hyeon's Poems in the 1990s", *The Journal of Korea Culture Technology* Vol.29, pp. 7-31, 2020.
- [6] Jo, Ji-hoon, *Jo Ji-hoon Anthologies*, Samsajae, 2020.
- [7] Han, Ga-lam, *If the weather is good, I'll visit you: Han Ga-lam's Scripts*, Sigongsa, 2020.
- [8] Jun, Mijung, "A Rhetorical Approach of Confession to 'Writing a Novel'", *Korean Journal of Rhetoric* No.41, pp.113-138, 2021.

※ 이 논문은 광운대학교 2023학년도 연구비로 지원되었음.